DBpia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이해

저자
(Authors)

이영태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26, 2000.5, 193-211(19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6, 2000.5, 193-211(19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506

APA Style

이영태 (2000).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이해. 국어국문학, 126, 193-21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4 13: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이해

이영태*

1. 서론

『삼국유사』(이하 『유사』) 기이2 <수로부인>조에 노옹이 수로부인에게 헌화하며 부른 <헌화가>가 있다. 정체불명의 노인이 석벽에 피어 있는 꽃을 꺾어 여자에게 바친 일과 관련된 <헌화가>를 이해하는 방법은 배경설화에 접근하는 시각만큼 다양하다. 노래의 이해는 노옹을 어떤 성향의 인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었다. 예컨대 노옹을 禪僧,[1] 山神靈,[2] 巫堂,[3] 司祭,[4] 村老[5] 등과 결부시켜 왔다. 노옹의 정체를 추정한 논의 중에서 무당이 강세를 띠는 것은 <헌화가>가 범세계적 주술구조를 지닌 <해가>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덕왕대의 旱災자료가 『삼국사기』와 『유사』에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해가>의 성격

---

* 인하대 강사

1)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31면.
김광순, 「헌화가」,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91, 275면.

2)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39면.

3)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3, 74면.

4) 김문태, 「<헌화가>·<해가>의 제의문맥」,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임하최진원박사정년기념논총), 1991, 95면.

5)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171면.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0(4쇄), 203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성균관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에 따라 <헌화가>를 기우제와 더불어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가>와 관련된 논의를 <헌화가>에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헌화가>를 이해하는 데에 주변에 머무는 정도이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노옹과 수로부인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유사』에 수록됐느냐를 살피는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해가>와 <헌화가>는 다른 성격을 지닌 노래이다.

2. 주된 논의방향 검토와 <수로부인>조의 수록경위

<헌화가>와 나란히 수록된 <해가>는 해룡에게 납치 당한 수로부인을 境內의 백성들이 지팡이로 강 언덕을 치면서 부른 노래이다. 명령과 위협으로 전개되는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해가>는 집단의 주술적 목적과 관련된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로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부른 <해가>는 여러 면에서 <구지가>와 유사하다.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6]　　구워 먹겠다.

龜乎龜乎出水路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　　남의 부인 앗아간 죄 그 얼마나 큰가
汝若悖逆不出獻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入網捕掠燔之喫[7]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구지가>의 "其現, 不現, 燔灼"이 <해가>에서 "掠人婦女罪, 悖逆, 入網捕掠燔"으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 <해가>가 <구지가>의 의상을 입

6) 『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7) 『유사』 권2 기이2 수로부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호칭→명령→가정→위협'으로 전개되는 형식뿐 아니라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九干을 포함한 2~3백명과 境內의 백성으로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거나 지팡이로 강언덕을 친 것도 유사하다. 또한 <구지가>와 <해가>에 발견되는 유사점은 조선조 蜥蜴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석척요는 도마뱀을 使者로 삼아 기우제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이다.[8]

<해가>를 기우제와 결부시켜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노래의 형식과 창자들의 행동에서 발견된 유사점을 통해서였는데, 무엇보다 기우제 쪽으로 기울어진 구체적 근거는 성덕왕대의 旱災 기록이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성덕왕 4년, 8년, 13년, 15년에 한재가 들었는데 그중에서 14년, 15년에 왕이 龍鳴嶽의 居士 理曉를 불러 林泉寺 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했더니 비가 10일 동안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한재 기록으로 <헌화가>와 <해가>에 접근하면 牽牛老翁은 거사 이효와 동일인[9]이거나 또는 그 지역 기우제를 주관하는 司祭[10]일 수 있었다. 결국 노옹이 거사 이효이거나 지역 기우제의 사제로 이해할 수 있었던 토대는 성덕왕대의 한재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인의 헌화와 수로의 납치 및 구출로 구성된 배경설화에서 기우제와 관련된 진술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게 문제이다. 물론 <헌화가> 자체에서도 기우제와 결부될 결정적인 진술을 찾을 수 없다.[11] 기우제는 陰陽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복원시키는 과정이다. 음양의 조화가 무너져

8)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그중에서 석척기우제는 궁중은 물론 일반 여염집에서도 행할 정도로 가장 일반적이었다. <구지가>와 석척요의 관계는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제12호, 배달말학회, 1987과 졸고, 「<구지가>의 수록경위와 해석의 문제」, 『한국학연구』 제1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참조.

9) 이혜화, 「용사상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1988, 93면.

10) 김문태, 앞의 논문, 95면.

11) 성기옥, 「<헌화가>와 신라인의 미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집문당, 1992, 63면. "굿노래의 언어로서 보이는 <헌화가>의 미학적 특질과 기능이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물음에는 거의 아무런 답변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수로부인과 노옹을 무속적 제의와 무관한 인물로 파악케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상상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음이 약하면 가뭄이 들고, 양이 약하면 홍수가 난다는 생각 때문에 기우제를 통해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다만 <헌화가>를 기우제적 사유로 풀어내면 자줏빛 바위에 암소를 놓은 일과 수로부인이 철쭉꽃을 받은 일을 양과 음의 교합으로 이해하게 마련이다.[12] 물론 이런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료는 성덕왕대의 한재 기록이었다. 그러나 한재 기록은 성덕왕 이전이나 이후의 어느 왕대에도 발견[13]할 수 있기에 그것으로 수로부인이나 노옹을 기우제와 관련된 인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논거가 튼실치 못하다.

결국 한재 기록으로 <헌화가>를 이해하기보다 <수로부인>조가 『유사』에 어떤 경위로 수록됐는가를 살피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수록경위에 대한 논의는 수로부인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사』에 실렸는가를 포함하여 일연이 수로부인이야기를 어떤 시각에서 이해·수록했는가를 판단하는 일로 분분한 이설을 최소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먼저 수로부인이야기에 대한 찬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조목명과 그것이 어떤 편목에 해당되는가를 통해서이다.

> 水路夫人條는 이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鄕歌 때문이었을까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一然이 생각한 일정한 체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약간의 예외적 사실이 紀異篇 후반부가 國王 중

12) 生生力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생생력은 Fertility, Fruchtbarkeit의 譯語로 인간 및 동물의 생식·번식·산육과 농사의 풍요·계절 및 자연의 雨順風調 혹은 생산성 등과 결부된다. 김열규, 「민속신앙과 생생력 상징」,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209면.

13) 진흥왕 36년, 진평왕 7·35·50년, 선덕왕 1년, 효소왕 5년, 경덕왕 4·6·13년, 혜공왕 5년 등이다. 특히 진평왕 50년에는 "夏大旱市移畫龍祈雨"이란 기우제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유사』 권4 의해5 현유가해화엄조에 따르면 경덕왕대 가뭄이 심하자 大賢을 대궐로 불러 金光經을 講하여 단비를 빌게 했다고 한다. 물론 『고려사』에 수록된 기우제 관련기록도 土龍, 巫堂, 禱雨, 仁王經 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우제 이후에는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이어진다.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2년, "夏四月己巳講仁王經於毬庭庚三日……五月庚辰造土龍於南省庭中集巫覡禱雨……庚寅雨"와 권15 세가15 인종 원년, "甲子造土龍聚巫禱雨……己巳醮于會慶殿禱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심, 특히 新羅의 國王 중심으로 엮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14]

기이편의 특성을 규정한 위의 논의에서 <수로부인>조는 "약간의 예외적 사실"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기이편에 <수로부인>조를 위치시킨 일연의 일정한 체계란 무엇인가. 우리는 기이편에서 국왕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목 <우사절유택>조와 <조설>조와 기이편의 조목명들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한>조와 <신라시조혁거세왕>조 사이에 있는 <우사절유택>조에는 49대 헌강왕대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집들의 처마와 담이 서로 이어져 있던 번성한 도성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15] 따라서 <우사절유택>조가 <신라시조혁거세왕>조의 앞에 위치한 것은 시간순으로 배열된 기이편의 편제에서 어긋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변한백제>조에서 백제가 전성했을 때의 戶數를 152,300이라 하고 곧이어 <진한>조에서 신라 전성시기 서울의 호수를 178,936이라 한 후 네 계절에 따라 놀던 귀족들의 별장과 헌강왕대의 번성한 성안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우사절유택>조의 설정은 백제나 신라에 대비해 통일신라 전대를 통틀어 가장 번성한 성안의 모습을 독립된 조로 만들려던 찬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16] 그리고 <조설>조는 애장왕, 헌덕왕, 문성왕대의 3왕대에 눈이 일찍 내린 것을 아주 짧게 기록한 조이다. 눈과 관련된 『유사』의 기록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일찍 내린 눈에 주목하여 하나의 독립된 <조설>조를 만든 것이다.[17]

---

14)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삼국유사연구논선집』, 백산자료원, 1986, 136면.

15) 그리고 이 조의 기록은 <처용랑 망해사>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16) 중종 7년(1512) 李繼福 등이 경주에서 판각한 『유사』 판본을 正德本이라 한다. 정덕본 이전에 대대적인 改板이 없었다고 할 때, 『유사』의 重刊 과정에서 <진한>조의 끝부분이 <우사절유택>조로 독립된 것인지 아니면 찬자가 편제했던 그대로인지 정확히 지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重刊 과정에서의 착오라 하더라도 <진한>조의 끝부분은 통일신라 전대를 통틀어 가장 번성한 성안 모습의 기록이다. 『유사』의 간행과 유통은 김상현,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삼국유사연구논선집』, 백산자료원, 1986, 282-292면 참조.

성신여자대학교 | 20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리고 기이편의 조목명들은 나라명, 왕명, 왕명+관련된 사건이나 인물, 왕대를 대표할 만한 사건이나 인물 및 사물명으로 나타난다. 나라명의 경우 <위만조선>, <마한>을 비롯해 <이서국>, <북부여>, <고구려>, <진한> 등이고 왕명은 <신라시조혁거세왕>,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효성왕> 등이다. 왕명+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의 경우는 <미추왕 죽엽군>, <선덕왕 지기삼사>, <내물왕 김제상>,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흥덕왕 앵무> 등이 있다. 왕대를 대표할 만한 사건이나 인물 및 사물명의 경우는 <사금갑>, <천사옥대>, <도화녀 비형랑>, <만파식적>, <수로부인>, <처용랑 망해사> 등이다. 여기서 네 번째의 경우는 사건이나 인물 혹은 사물의 이름이 조목명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 왕대하고 무관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이편 一과 二는 단군에서부터 고려건국 이전까지의 일을 시대순으로 기술되어 있기에 조목명에 왕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특정시기를 대표할 만한 사건이나 인물 및 사물의 이름을 통해 그 왕대를 대신했던 것이다. 예컨대 <만파식적>조는 신문왕대를, <천사옥대>조는 진평왕대를, <처용랑 망해사>조는 헌강왕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이다. 그에 따라 왕명하고 무관한 <수로부인>조는 성덕왕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 중심이 된 조목이라 할 수 있다.[17]

그래서 <우사절유택>조와 <조설>조는 신라시대에서 도성이 가장 번성한 것과 눈이 가장 일찍 내린 것을 기록한 조목이고 <수로부인>조는 성덕왕대라는 특정시기를 대표할 정도의 인물과 관련된 조목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약간의 예외적 사실"로 파악했던 <수로부인>조도 <우사절유택>조와 <조설>조가 수록된 이유와 조목명이 지닌 의미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로부인>조에서 노옹이 사람이 오르기 힘든

17) 자연현상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던 시대에 부雪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과 결부됐을 수 있다. 그러나 3왕대에 눈이 일찍 내린 것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 신라시대에서 가장 부雪했던 것에 주목한 결과가 하나의 조목으로 설정된 것이다.

18) <수로부인>조 바로 앞의 <성덕왕>조는 가뭄과 관련된 짧은 기록이지만 그것이 그 왕대를 대표할 만한 기록은 못된다. 『유사』에는 성덕왕대 못지 않았던 가뭄 기록이 산견된다.

Copyright (C) 2021 Nurimedia Co., Ltd. 성균관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석벽에 핀 꽃을 꺾은 일과 신물들이 수로부인을 납치한 궁극적인 이유인 "姿容絶代"에 주목해야 한다.[19]

"자용절대"란 당대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수로부인의 용모가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의 용모가 뛰어났다는 기록은 다른 조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자용절대'로 표현한 경우는 수로부인뿐이다. 얼굴이 곱고 아름다운 桃花女(姿容艶美),[20] 매우 아름다운 헌안왕의 둘째 공주(二公主甚美),[21] 덕행과 용모가 아름다워서 태조의 后가 될 수 있었던 億廉의 딸(德容雙美),[22] 뛰어나게 아름다운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美艶無雙),[23] 아름답기 짝이 없어 중국 천자가 총애한 여자(美艶無雙),[24] 역신이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운 처용의 처(其妻甚美)[25] 등이 『유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쁜 여자들이다. 이들 여자들은 '姿容艶美'나 '甚美,' '德容雙美,' '美艶無雙'으로 한결같이 '美'라는 글자와 결부되어 있지만 각각의 조에서 그들의 용모가 중심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美'라는 글자와 결부되어 있지 않은 '자용절대'는 <수로부인>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며 그것이 노옹의 헌화와 신물의 납치라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수로부인>조의 이해는 '자용절대'를 고려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자용절대의 여인이야기가 기이편에 편제된 이유는 신라시대에서 도성 안이 **가장 번성했던** 기록과 눈이 **가장 일찍 내린** 기록이 위치한 경우와 특정 왕대를 대표할 만한 미모의 여인을 조목명으로 설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수로부인은 신라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자용절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여자

19) 성기옥, 앞의 논문, 67-68면.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은 두 삽화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인 동시에 수로부인 설화의 중심제재인 것이다."라는 주장도 이 글의 입장과 동일하다.
20) 『유사』 권1 기이1 도화녀 비형랑.
21) 『유사』 권2 기이2 제48대 경문대왕.
22) 『유사』 권2 기이2 김부대왕.
23) 『유사』 권2 기이2 무왕.
24) 『유사』 권3 탑상4 삼소관음중생사.
25) 『유사』 권2 기이2 처용랑 망해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라고 할 수 있다.

수로부인이야기를 찬자가 어떤 시각에서 이해했는가를 기이편에서 <수로부인>조가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배경설화의 수록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배경설화는 아래와 같다.

>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 [지금 명주]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석봉이 병풍처럼 바다를 두르고 있는데 높이가 천 길이나 되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성하게 피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가 좌우에게 "누가 저 꽃을 꺾어 오겠는가?" 하자, 종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모두 응하지 않았다. 그 곁에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주며 가사를 지어 함께 바쳤는데,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 또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공이 땅에 넘어지면서 발을 굴렀으나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했으니 이제 바다 속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강 언덕을 치면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로는 용모가 뛰어나 매양 깊은 산과 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번 신물에게 붙들림을 당했기에 사람들이 부르던 해가사는[26]

위의 기록은 헌화담을 전반부로, 납치 및 구출담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후반부로 나뉘어 있지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수로부인>조가 기이편에 편제된 과정에서 밝혔듯이 "姿容絶代"한 수로의 용모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로 용모와 관련된 배경설화가 어떤 경로를 겪어 『유사』에 수록됐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배경설화가 『유사』에 실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록→기록과

---

26) 『유사』 권2 기이2 수로부인, "聖德王代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州]行次海汀晝饍傍有石嶂如屛臨海高千丈上有躑躅花盛開公之夫人水路見之謂左右曰折花獻者其誰從者曰非人跡所到皆辭不能傍有老翁牽牝牛而過者聞夫人言折其花亦作歌詞獻之其翁不知何許人也 …… 又有臨海亭晝饍次海龍忽攬夫人入海公顚倒躃地計無所出又有老人告曰故人有言衆口鑠金今海中傍生何不畏衆口乎宜進境內民作歌唱之以杖打岸可見夫人矣 …… 水路姿容絶代每經過深山大澤屢被神物掠攬衆人唱海歌詞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상명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구전→기록이 그것이다. 첫째로 기록→기록은 다시 轉寫와 略載, 그리고 編次한 것으로 나뉘는데 전사는 전거로 삼았던 것의 내용을 글자 하나 하나까지 『유사』에 옮겨 적은 것[27]이고 약재는 말 그대로 전거를 대략 추려서 옮겨 적는 방법이다.[28] 편차는 전거로 삼았던 것들에서 착종이 일어난 부분을 제외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적는 것이다.[29] 그리고 둘째 경우인 구전→기록은 일연이 구전설화를 채록한 것이기에 구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 구전설화는 담당층의 구전능력에 따라 변형되는데 예컨대 <사복불언>조에서 구전 담당자들이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황당한 이야기를 덧붙이(多以荒唐之說託)자 일연이 웃을 만하다(可笑)[30]고 한 것을 통해 구전설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31]

배경설화의 수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로부인>조는 구전→기록의 경우에 해당된다. 전사, 약재, 편차를 위해 전거가 활용된 흔적이 전혀 없으며 할주도 "江陵太守[今溟州]"에만 있고 시기도 성덕왕대로 뭉뚱그려 있다.[32] 구전의 과정을 겪던 설화를 일연이 『유사』에 채록한 것이 <수로부인>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로부인이야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전설화가 『유사』에 채록되기 전에 겪은 과정을 감안해야 한다.

『유사』 소재 설화를 전승시키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전승소를 상정하기도 한다.[33]

---

27) 『유사』 권3 탑상4 남월산, "[古人成之以下文未其意但存古文而已下同]."
28) 『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駕洛國記[文宗朝大康年間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今略而載之]."
29) 『유사』 권3 탑상4 낙산이대성 관음정취조신, "故今前却而編次之."
30) 『유사』 권4 의해5 사복불언.
31) 배경설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사』에 수록됐는가는 졸저, 『한국고전시가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1998, 16~60면 참조.
32) 기록→기록의 과정과 관련된 배경설화의 앞부분은 전거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중국식 연호 + ~왕 + ~월 + ~일'의 순서로 시작된다. 반면 구전→기록의 과정과 관련된 배경설화는 흔히 '중국식 연호'나 '~월 + ~일'이 생략되곤 한다.
33) 김학성,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195~196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첫째, 興味素 ; 이것은 主로 民衆階層에 作用하는 傳承素로서 民衆들로 하여금 說話를 創作·形成·傳播케 하는 動因이 된다.

둘째, 效用素 ; 이것은 巫覡 혹은 佛僧같은 宗敎·呪術擔當者가 그들의 信仰이나 思想을 擴散시키는 手段으로 作用하는 傳承素로서 그들 特殊集團의 布敎와 靈驗의 提示에 이바지 한다.

셋째, 目的素 ; 이것은 主로 上層民인 支配階層에 作用하는 傳承素로서 자기네의 文化的 優越과 敎訓性을 誇示하려는 目的에 依해 說話의 形成·傳播에 加擔하는 動因을 말한다.

위의 논의에 기대어 볼 때 <수로부인>조의 전반부는 흥미소, 후반부는 효용소를 전승소로 삼고 있다. 지배계층의 문화적 우월이나 교훈성과 관련된 목적소를 전승소로 삼기에는 노옹의 헌화와 신물의 납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흥미소와 효용소가 전승소로 기능하더라도 전·후반부에서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용절대'라는 수로의 용모 때문이었다. 노옹이 '자용절대'의 수로부인에게 헌화한 일에 전승담당층으로 민중이 가담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게 설화를 변형·굴절시켰고 이후에 포교와 영험을 확장시키려던 주술담당자들이 이야기의 전승에 개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과를 거친 구전설화를 일연이 『유사』 기이편의 <수로부인>조에 수록했던 것이다. 이것이 수로부인이야기가 『유사』에 수록된 과정이다.

3. 수록경위를 고려한 배경설화와 노래의 이해

수로부인이야기에 대한 찬자의 시각과 <수로부인>조가 『유사』에 수록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수로부인>조의 중심내용은 '자용절대'라는 수로의 용모로 규정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용절대'와 관련된 이야기의 전승소를 흥미소와 효용소에서 찾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설화에서 변형·굴절된 부분은 전승담당층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경설화를 이해할 차례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성균관대학교 (IP:183.106.106.***) Accessed 2021/06/24 13:46(KST)

먼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옹이 암소를 끌고 가다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핀 철쭉을 꺾어 바친 일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헌화가>의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노옹의 정체는 "不知何許人"이나 "老翁牽牸牛," 그리고 "非人跡所到"를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 "老翁牽牸牛"에 의미를 두면 노옹은 자신의 尋牛를 잡고 가는 牧牛者 즉 禪僧[34]이거나 山神役을 맡은 사람이 소를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神格[35]으로 이해할 수 있고 "不知何許人"과 "非人跡所到"을 "海岸孤絶處普陀洛迦山"[36]이라는 觀音의 常住處로 이해하면 노옹은 관음의 變身[37]이다. 그리고 "不知何許人"·"老翁牽牸牛"·"非人跡所到"의 기록을 뭉뚱그려 노옹을 神仙[38]이나 降神巫들이 神病과정에서 보는 하얀 할아버지[39]로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후반부의 납치담을 결부시키면 헌화한 노옹은 용의 변신[40]이거나 구출하는 과정과 성덕왕대의 한재에 비중을 두면 노옹·노인은 그 지역의 기우제를 담당했던 司祭[41]이다. 반면에 "不知何許人"·"老翁牽牸牛"·"非人跡所到"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을 경우 노옹은 평범한 村老[42]이거나 농부[43]가 되고 만다.

그런데 노옹을 기우제와 관련된 사제로 파악한 것말고는 대부분이 실증적인 기반이 약한 심상에 의존한 논의들이다. 노옹의 정체를 해명할 만한 단서가 부족한 사정에서 시도된 것이기에 작가론과 관련된 자료의 확대 해석은 필연적이었는데 특히 노옹을 '신선'이나 큰무당인 '하얀 할아버

34) 김종우, 앞의 책, 30-33면.
김광순, 앞의 논문, 273-274면.
박성의, 『한국문학배경연구』, 이우출판사, 1976, 182-183면.
35) 조동일, 『삼국시대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27면.
36)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9, 243면. 『觀音禮請文』에서 재인용.
37) 같은 곳.
38) 김선기, 「꽃받친 노래」, 『현대문학』 153호, 1967. 9, 352면.
서정주, 『서정주문학전집』 4, 일지사, 1972, 18면.
39) 장진호, 앞의 책, 80면.
40) 김현룡, 『한국고대설화론』, 새문사, 1984, 250면.
41) 김문태, 앞의 논문, 95면.
42) 윤영옥, 앞의 책, 171면.
43) 박노준, 앞의 책, 201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지'로 파악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선승이나 관음으로 추정한 논의도 암소나 절벽을 각각 목우자나 관음의 거처로 추정하고 있지만 후반부의 수로부인 구출담이 주술적인 성향을 띨 뿐 불교적 성향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노옹을 만나기 전의 "行次海汀晝饍"에서 "주선"을 "천자나 동궤인 신에게 祭儀式을 행할 때 신에게 바치는 음식"[44]이라 하여 수로부인을 巫로 추정하지만 주선은 祭儀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단순히 '점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태종 춘추공이 백제를 멸망시킨 뒤 점심을 먹지 않고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는 "自庚申年滅百濟後除晝饍但朝夕而已"[45] 기록에서도 '주선'은 제의와 무관한 점심이다. 결국 전반부의 주선을 제의와 결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후반부에 있는 수로부인의 납치 및 구출담 때문이다.

이처럼 <수로부인>조를 이해하려는 여러 접근방식이 논의를 풍성하게 한 만큼 허점이 뒤따르기에 배경설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배경설화를 이해하기에 앞서 전제될 것은 그것의 수록경위와 채록자 일연의 시각이다. 이것은 <수로부인>조를 『유사』의 기이편에 편제시킨 이유와 채록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고려하는 일이기에 노옹의 정체나 <헌화가> 이해에 선행될 일이다. 우리는 앞의 논의에서 <수로부인>조가 '자용절대'로 표현된 수로의 용모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유사』에 수록되기 전에 구전의 과정을 겪었는데 전승담당층으로 민중과 주술담당자들이 차례로 가담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게 수로부인이야기를 변형시켰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수로부인>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옹이나 수로부인의 정체는 배경설화 문맥 그대로 신비롭고 초월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노옹과 관련된 신비스러운 표현은 구전과정에서 부가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 노인이 순정공의 아름다운 부인에게 헌화한 일이 구전의 과정을 겪으면서 홍미소라는 전승동인과 결부됨에 따라 노옹의 정체가 신비스럽

44) 김광순, 앞의 논문, 269면.
45) 『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게 변한 것이다. 그리고 구전하던 이야기가 문자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글자의 착종은 老翁과 老人, 牸牛와 母牛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전반부에 헌화한 사람이 '노옹'으로 후반부에 수로부인의 구출을 도왔던 사람이 '노인'으로 바뀌었는데 <헌화가> 전에 "老人獻花歌曰"로 나타난다. 게다가 노옹이 끌고 간 소가 '牸牛'였지만 향찰 표기는 '母牛'로 나타나는 것도 구전설화의 채록과 향가의 수록경위와 결부된 사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사』의 향가는 두 가지의 경로를 거쳐 수록됐는데 첫째는 전거로 삼았을 만한 '가사책類'[46]의 향가를 철저하게 그대로 베껴 적은 것이고 둘째는 일연이 직접 채록하여 향찰로 표기한 경우다. 전자는 <원왕생가>의 가사에 부기된 할주 "鄕言云報言也"와 <원가>에서 마지막 분절된 "後句亡"이란 표현으로, 후자는 <처용가>가 분절되지 않고 連書된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다.[47] 향가의 수록경위를 염두에 둘 때 '모우'라는 표현도 가사책류에 3분절된 <헌화가>를 『유사』에 전사함에 따라 생긴 것이다. 글자와 관련된 착종은 모두 수록경위를 고려할 때 구전설화의 문자화와 가사책류의 전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옹'이나 '노인', '자우'나 '모우'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두고 각종 전적에서 글자의 용례를 찾아 작가론을 전개하는 것은 수록경위를 고려할 때 실증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수로부인의 납치 및 구출로 구성되어 있는 배경설화의 후반부는 노인이 수로부인의 구출방법을 "衆口鑠金"과 "以杖打岸," 그리고 '호칭+위협'이라는 주술구조를 지닌 <해가>로 제시했기에 제의적 측면과 밀접한 부분이다. 그래서 후반부를 근거로 전반부의 노인 <헌화가>를 제의적 사고로 읽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후반부는 노인의 헌화와 관련된 수로부인이야기의 전승담당층으로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담한 결과이다. 주술담당자들이

46) 이글에서 언급한 '가사책類'는 노래가 수록된 '小冊子'나 '종이뭉' 즉 古休紙片 등을 포괄한다. 졸고, 「향가 분절의 의미」, 『한국학연구』 제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34면 참조. 졸저, 앞의 책, 재수록.

47) 위의 논문.

성균관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무엇보다 전승담당층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용절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사』에 등장하는 미인들이 신물과 결부되곤 하는데,[48] 이것은 美를 거리를 두고 대상화하기보다 가까이 두고 일체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결과이다. '자용절대'는 『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관련된 표현이기에 신물이 수로부인을 탐하려는 의도 즉 일체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따라 "衆口鑠金"과 "以杖打岸," 그리고 '호칭-위협'의 노래를 통해 수로부인을 구출함으로써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제시하기 위해 전승물에 가담한 사례는 아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巫女 :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수이 간다고 자랑 마라~ 일도 창해(一到滄海)하니~ 다시 오기가 에룹도다~
> 춤추던 할머니 : 잘한다~
> 巫女 :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 하니야 쉬어간 줄 누가 알까~[49]

> 巫女 : 황주구금(黃州郡) 도화동(桃花洞)에 한 맹인(盲人)이 ~살았는데~
> 잽이 : 아~디아
> 巫女 : 성(姓)은 심씨(沈氏)요 이름은 학규라~
> 잽이 : 아~디아
> 巫女 : 심학규라 하는 이는 사십줄이 안명(眼盲)하여[50]

축원무가인 가망님께 비는 <소가망거리>에서 무녀가 부른 것은 황진이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조이다. 주술적 기능이 전혀 없는 기녀의 시조가 주술담당자들에 의해 견인된 것이다. 그리고 <맹인거리>는 판소리 <심청가>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서사무가이다. 판소리 <심청가>가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심청굿이나 심청이굿으로 불

48) 예컨대 역신이 처용의 처와 동침하거나 진지왕의 혼령이 도화녀와 관계했던 이유에 그들의 아름다운 용모가 자리잡고 있다.
49) 박경신, 『동해안 별신굿 무가(3)』, 국학자료원, 1993, 72면.
50) 박경신, 『동해안 별신굿 무가(4)』, 국학자료원, 1993, 8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175.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리는 맹인거리는 눈을 밝게 하고 눈병을 예방한다는 주술적 목적으로 구연된다. 주술담당층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려고 판소리 <심청가>를 무가 쪽으로 견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술담당자들이 주술적 목적에 따라 황진이의 시조나 판소리 <심청가>를 견인한 이유 중에 포교대상자들이 그것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에 축원이나 눈병과 관련된 영험의 제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나 사건에 기대어야 포교대상자들이 영험의 제시를 쉽게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배경설화의 후반부에 "衆口鑠金"·"以杖打岸"·<해가>는 <헌화가>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수로부인의 '자용절대'가 신물마저 납치할 정도였기에 수로부인 납치에 따른 구출방식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동원된 것이다. 이것은 자용절대의 수로부인이야기가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紫布岩乎邊希
執音乎手母牛放敎遣
吾肹不喩慚肹伊賜等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자주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51]

1행은 노옹과 수로부인이 만난 공간이다. 그곳은 석봉이 병풍처럼 둘러싼 바닷가로 철쭉이 만발한 장소이다. 그곳을 지나가던 노옹은 "非人跡所到"에 있는 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치기 위해 암소를 놓았다. 여기서 암소를 생생력이나 종교적인 상징으로 파악하기보다 노옹을 둘러싼 일련의 신비스런 표현을 전승동인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 할 때, 암소는 평범한 촌로의 일상과 관련된 동물이다. 그런데 촌로가 태수의 부인에게 꽃을

51)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70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꺾어 바친 일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행동인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계기는 수로부인이 지닌 자용절대였다. 자용절대를 길에서 만난 노옹은 "非人跡所到"을 감수하고 꽃을 꺾었다. 노옹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던 것은 어떠한 보상이나 의도적인 요소와 무관하게 '자용절대'를 지닌 수로부인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정열적인 용기'만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오르기 힘든 곳에 핀 찔쭉을 꺾을 정도로 노옹이 정열적인 용기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에 찔쭉이 개화하는 시기도 작용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찔쭉은 4월이나 5월에 개화하기에 봄하고 아주 밀접하다. 그리고 봄을 뜻하는 '春'이 지표를 뚫고 나오는 풀의 모습과 관련된 글자라 할 때,[52] 春이 주는 의미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인간과 관련된 春心, 思春期, 懷春 등의 조어는 봄의 의미와 밀접하다. 그래서 수로부인을 수행하던 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노옹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열적인 용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53]

3행~4행을 통해 볼 때 평범한 촌로가 태수 부인에게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고 했다는 것은 평범한 노옹의 신분으로 보아 어색한 부분이다. 일개 노인이 강릉태수의 처에게 '~하면 ~하겠다.'는 조건 형태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노인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노인을 초월적 존재인 신선이나, 용의 변신 혹은 하얀 할아버지 등으로 추정한 것도 조건문 형태의 진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수로부인>조의 수록경위를 감안할 때, '자용절대'의 여인에게 노옹이 헌화한 일은 민중이 전승담당층으로 기능하던 흥미소와 관련되어 있고 평범한 신분의 노옹이 부임지를 향해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수의 처에게 조건 형태의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노래를 부른 곳은 "자줏빛 바위가"가 아니라 다른 장소라 할 수 있다. 노옹이 '자용절대'의 여인에게 헌화한 일은 노옹 자신에게 대단한 사건이었으나 수로부인과 그의

52) 『중문대사전』 4권, '춘' 항목.

53) 물론 수로부인의 종자들이 "非人跡所到"라고 꺼리던 곳에 있는 꽃을 노옹이 꺾을 수 있었던 이유에 그 지방의 지형에 밝은 촌로라는 점도 포함된다. 이런 점은 박노준, 앞의 책, 202면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한국사문화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일행들은 강릉을 향해 가는 길이고 노옹은 그 지방에 머물러야 할 처지이니 '헌화 사건'을 주변에 전해줄 자는 노옹 자신밖에 없었다. 여기서 허세가 개입되기 시작한다. 노인은 자주빛 바위가에서 벗어나자 자신의 헌화 담을 주변에게 전하면서 헌화 조건을 제시하는 노래를 지었다고 허세를 부렸던 것이다. 여기서 허세는 자신의 열등을 포장하는 것인데 이 행위는 타인에게 또 다른 열등을 조장한다고 한다.[54] 노옹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자용절대와 관련된 헌화만으로도 노옹을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조건 형태의 노래까지 지었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게 마련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노옹의 허세에 열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건 형태의 노래를 지었다고 노옹이 부리는 허세의 이면에는 자신의 열등 즉 수로부인에 비해 신분이 천하고 늙은 것을 과대 포장하는 게 자리잡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아름다운 대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는 마음보다 자기 중심적인 예단 즉 일체화하려는 일반적인 심사도 결합되기 마련이다. 이런 심사는 자용절대의 수로부인이 꽃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지 않고 꺾고자 했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볼 수 있다.

결국 노옹처럼 전승담당자가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황당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일연이 언급한대로 "俚諺多以荒唐之說託焉可笑"[55]와 동일하기에 조건 형태의 노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해가>를 중심으로 <헌화가>를 이해하려던 기존의 논의를 검토해봤다. <헌화가> 이해의 근간은 성덕왕대의 한재기록이 아니라 <수로부인>조가 『유사』의 편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것이 어떤 수록경위를 거쳐

54) 여성모임 사랑, 『남성연구』, 나라사랑, 1993, 60면.
55) 『유사』 권4 의해5 사복불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성신여자대학교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일연에게 전달됐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수로부인과 관련된 '자용절대'는 『유사』의 미인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수로부인>조하고만 결부되어 있고 중심내용도 수로부인의 '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남치 및 구출담이 부언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술담당층의 전승층으로 가담한 후 생성된 것이기에 <헌화가>의 이해는 수로부인의 자용절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헌화가>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조건문 형태의 진술이 나온 사정인데 이것은 신라시대 한 노인이 미인을 대한 태도로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노인과 미인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인간의 욕망체계에서 한 부분일 수 있는 허세와 관련시키면 노옹은 현재에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91.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9.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김현룡, 『한국고대설화론』, 새문사, 1984.
박경신, 『동해안 별신굿 무가(3)』, 국학자료원, 1993.
_____, 『동해안 별신굿 무가(4)』, 국학자료원, 1993.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0(4쇄).
박성의, 『한국문학배경연구』, 이우출판사, 1976.
서정주, 『서정주문학전집』 4, 일지사, 1972.

Copyright (C) 2021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

여성모임 사랑, 『남성연구』, 나라사랑, 1993.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이영태, 『한국고전시가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1998.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3.
조동일, 『삼국시대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김문태, 「<헌화가>·<해가>의 제의문맥」,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임하최진원박사 정년기념논총), 1991.
김상현,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삼국유사연구논선집』, 백산자료원, 1986.
김선기, 「곶받틴 노래」, 『현대문학』 153호, 1967. 9.
김열규, 「민속신앙과 생생력 상징」,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김학성,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제12호, 배달말학회, 1987.
성기옥, 「<헌화가>와 신라인의 미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집문당, 1992.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삼국유사연구논선집』, 백산자료원, 1986.
이영태, 「향가 분절의 의미」, 『한국학연구』 제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______, 「<구지가>의 수록경위와 해석의 문제」, 『한국학연구』 제1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이혜화, 「용사상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198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4 13:46(KST)